중수청 없는 제주…중대범죄 수사 차질 우려

중대범죄 대면조사 등 광주중수청서 진행

사건 처리 지연·수사 역량 한계 우려 등 제기

출장소 설치 검토 입장이나 방안은 아직

고소장 접수 안내 등 안돼 초반 혼선 불가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동시 출범했다.

다만 기존 제주지방검찰청 청사를 활용하는 제주지방공소청과 달리 중수청은 제주에 설치되지 않고 광주지방중수청이 제주 사건을 관할키로 하면서 일부 주민 불편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과 광주지방중수청 등 6개 중수청이 지난 2일 일제히 출범했다.

중수청 출범에 따라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법 왜곡 등 제주지검이 맡아왔던 제주 지역 중대범죄 직접 수사는 광주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맡게 된다.

다만 제주지역 중대범죄 피해자들이 대면 조사를 위해선 광주중수청으로 가야 하는 부담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이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에는 광주·전주·제주지검과 산하 지청에서 담당하던 수사가 광주중수청 한 곳으로 모이는 만큼 지역 현안과 밀접한 중대범죄 수사 역량에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역 출장소 설치 등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현재까진 별다른 중수청 출장소 설치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이 관할하는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광주에 가서 내야 하는지 등 도민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입 초기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부칙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공소청 출범 이후 90일까지는 기존 검사가 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을 포함해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을 기존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소청 전환에 따라 제주지검 정원은 기존 대비 약 20% 줄었다. 다만, 형사 제1·2·3부 등 부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인력 감축만 이뤄졌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제주지방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에 집중하게 돼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lbo.com



공소청과 중수청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5일 오후 제주시 제주지방공소청 정문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samdailbo.com

제주대병원 재정 건전성 '경고등'

금융 부채 3년 만에 75% 급증

2023년 778억→올 7월 1365억 껑충

지난해 기준 이자 비용 39억원 달해

특별회계 신설·운영자금 지원 등 필요

제주지역 필수의료의 최후 보루인 제주대학교병원의 금융 부채가 3년 만에 75%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전국 주요 국립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9개 주요 국립대병원의 누적 금융부채가 총 1조58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병원별 누적 금융부채 규모를 살펴보면 제주대학교병원의 금융 부채는 2023년 778억원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1365억원으로 단 3년 만에 7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연간 이자 비용만 지난해 말 기준 39억원으로 집계돼 운영자금 지원 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빚더미에 앉아 매년 수십억원대에서 백억원대의 이자를 내느라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조속히 신설해 운영자금 차입금에 대한 저리 대환대출 및 이자 비용 지원 등 긴급 재정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lbo.com

공동모금회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모금 캠페인 목표액 초과 달성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는 지난달 30일 마감한 '제14차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모금 캠페인'에서 목표액 1억원을 넘어 총 1억506만원을 모금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어려웠던 시절 제주를 떠나 일본에서 생활하며 고향 제주와 지역사회를 위해 힘을 보태온 재일제주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생활이 어려운 재일제주인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MBC,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추진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참여가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은 재일제주인 어르신들의 고향에 대한 마음을 기억하고 나눔에 동참하며, 세대를 넘어 감사와 보답의 마음을 전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캠페인에 참여한 도민과 학교를 비롯한 모든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모인 성금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재일제주인 어르신들에게 위로금과 생필품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lbo.com

JDC-공공운수서비스노조, 공공부문 제1호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송석언)는 지난 2일 JDC 본사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엄길용, 제이디씨파트너스지회장 김동구)와 공공부문 제1호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노사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선도적 이행 ▲노동안전보건협의체 고도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입체적 노사관계 소통기구 신설 등에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김동구 공공운수서비스노조 대표교섭위원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낙찰률 폐지와 고용규모 보장을 이끌어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노사 소통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상생 협력을 이어가고, 이번 공공부문 제1호 원하청 단체협약이 모범사례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석언 JDC 대표교섭위원은 "개정 '노조법' 이후 공공부문 제1호 단체협약을 JDC가 먼저 시작하게 됐다"며 "공공부문 제1호 원하청 단체협약은 물론 우리 원하청 노사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도 선도적 이행하는 모범적 노사관계를 공공부문 전반에 적극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samdailbo.com

글로벌시민 곶자왈 생태체험 운영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이사장 김범훈)은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걷고 함께 배우는 '2026 제주 글로벌시민 곶자왈 생태체험-곶자왈 Hand in Hand' 프로그램을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도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도민과 다문화가정, 이주민을 대상으로 교래자연휴양림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서 10~11월에 걸쳐 총 10회 운영된다.

김범훈 이사장은 "가장 제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기치를 내건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세계적으로 제주만의 고유한 환경자산인 곶자왈 보전은 그 핵심적 가치 실현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글로벌 시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제주의 가치를 공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lbo.com

